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 연준, 강한 인플레이에도 불구하고, 올해 3차례 금리 인하
- CNBC: 연준, GDP와 인플레이 상향 조정
- YahooFinace: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 크게 초과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건수 감소... 노동시장 여전히 강해
- WSJ: 미국은 중국식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S&P 500, 랠리 강세로 올해 20번째 기록 세울 듯

[개인 금융]

- WSJ: '현금 5% 수익률' 시대는 지났다

[에너지]

- Bloomberg: 유가 86달러 근접 ... 달러 강세 영향
- WSJ: 지난주에 미 원유 재고 2백만 배럴 감소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N Business: 백악관, 미 근로자의 10%가 AI에 취약하다고 밝혀
- CNN Business: MS 등 기업들, Apple에 앱스토어 규정 관련 이의제기
- CNBC: 미 화물 트럭 시장 위한 전기차 충전 확대한다

[보고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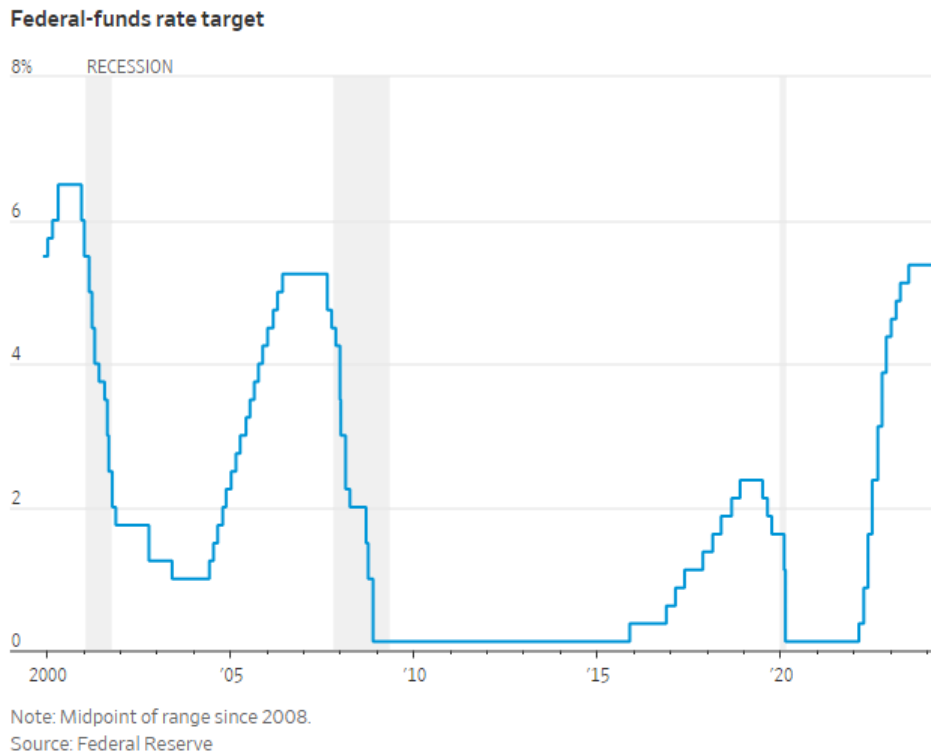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Fed Officials Still See Three Interest-Rate Cuts This Year, Buoying Stocks

연준, 강한 인플레이에도 불구하고, 올해 3차례 금리 인하

- 어제 목요일 연준이 지난 수개월간의 강한 인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함에 따라 주식은 상승했다.
- 어제 금리는 일단 5.25%~5.5%로 유지기로 결정했다.
- CME 그룹에 따르면 어제 수요일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6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번 주 초에 50%에서 어제 오후에 75%까지 상승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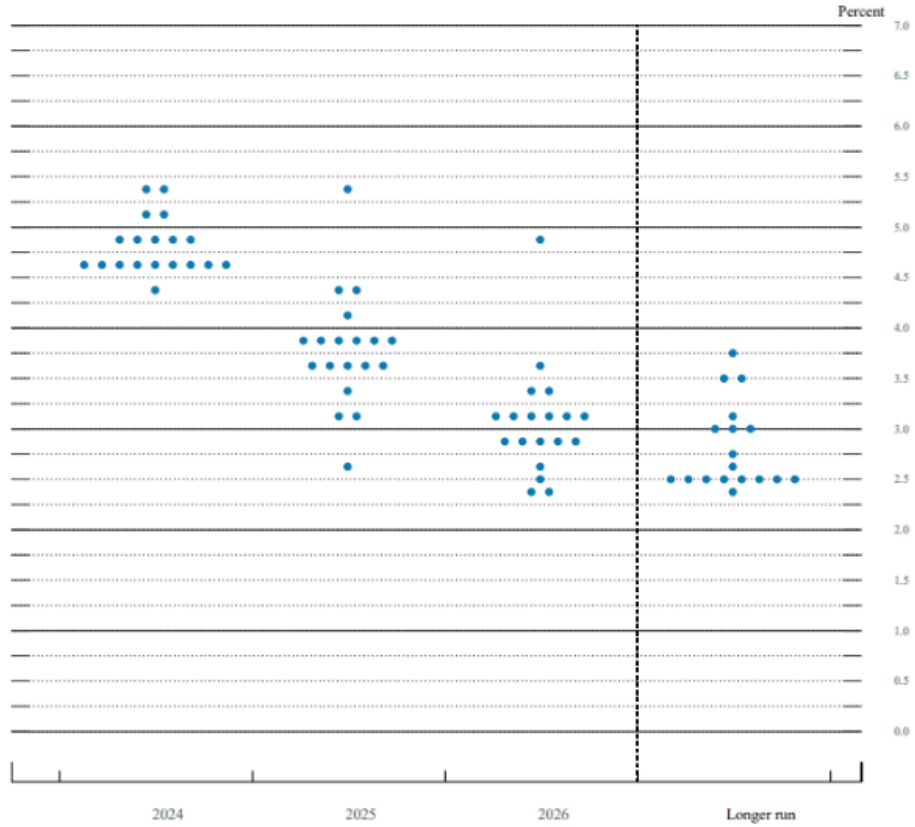
WSJ 기사

CNBC: Fed raises GDP and inflation outlook, while keeping rate cut forecast

연준, GDP와 인플레 상향 조정

- 어제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GDP와 인플레는 상향 조정했다.
- 올해 실질 GDP는 2.1%로 예상했는데 이는 12월의 1.4%보다 높은 수치다. 핵심 소비자물가 지수는 2.4%에서 2.6%로 상향 조정했다.
- 한편 어제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관련 예상을 알려주는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중간 기준 금리는 4.6%로 올해 3차례 각각 0.25%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.

Figure 2. FOMC participants' assessments of appropriate monetary policy: Midpoint of target range or target level for the federal funds r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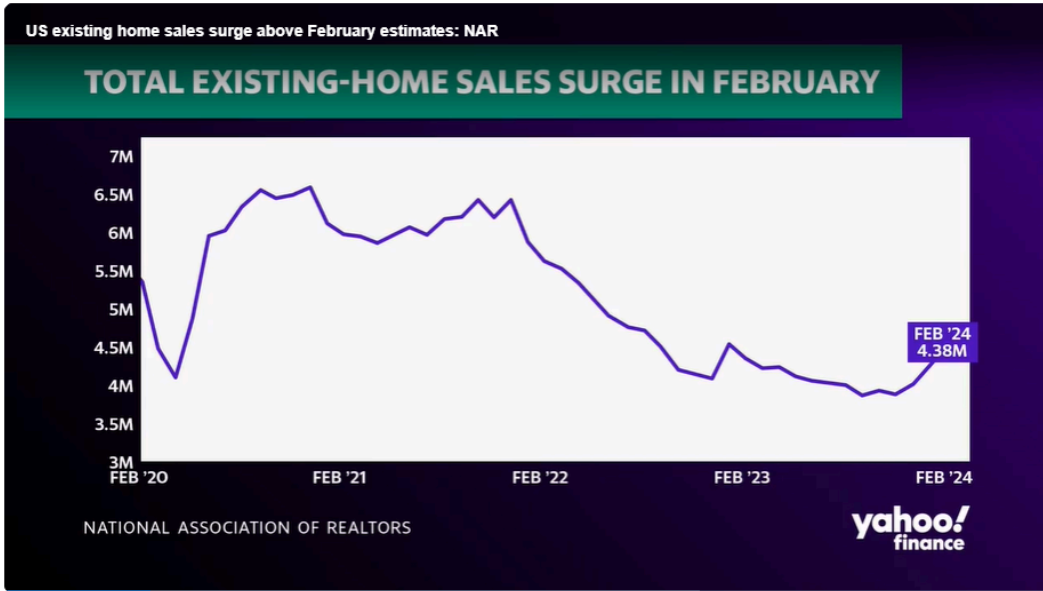
Federal Reserve

CNBC 기사

YahooFinance: US existing home sales surge above February estimates: NAR

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 크게 초과

- 미 부동산협회(NAR)에 따르면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4백38만건 수로 예상치 3백95만건을 뛰어 넘었다.
- 이 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며 기존 주택 중간값 가격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.



YahooFinace 기사

Bloomberg: US Initial Jobless Claims Ease in Sign of Resilient Labor Market

미 신규 실업수당 건수 감소... 노동시장 여전히 강해

-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에 머물면서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3월 16일에 끝난 신규 신청 건수는 2천건 줄어든 21만건으로 나타났다.
- 지속해서 받고 있는 현재 신청 건수도 큰 변동 없이 1백81만건을 기록했다.

US Jobless Claims Remain Subdued



Bloomberg 기사

WSJ: America Is Sliding Toward Chinese-Style Capitalism 미국은 중국식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

- 미국은 정부가 생산 수단을 장악하는 사회주의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. 그러나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우선주의로 정하면서 비즈니스에 정기적으로 간여하고 있다.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가 비즈니스의 수익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다.
- 예컨대, 틱톡이 중국에 있어야 하는지 미국이 흡수해야 하는지, 유나이티드 철강을 일본 기업이 인수해야 하는지 미국이 거부해야 하는지 라는 논란과 더불어 인텔에 85억불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이와 관련된다.

WSJ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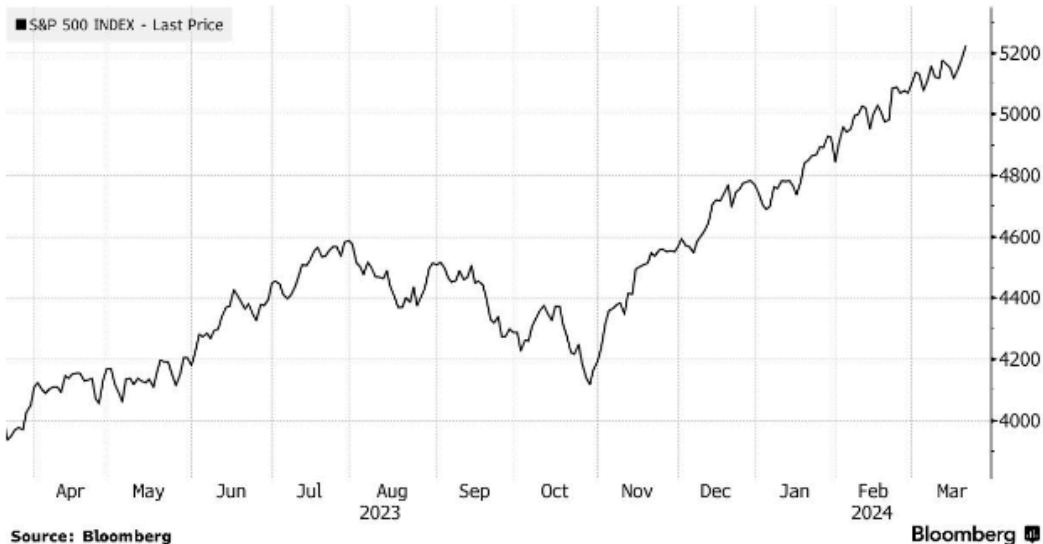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&P 500 Set for 20th Record This Year on Rate Bets: Markets Wrap

S&P 500, 랠리 강세로 올해 20번째 기록 세울 듯

-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나타나면서 S&P 500 지수가 올해 20번째 기록을 세웠고 주요 증시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. 기술 업종이 이끌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. 작은 종목들도 이번 주 상승 폭이 계속됐다.
- 이와 관련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직후에 영국 은행의 주요 매파 인물 두명이 금리 인상 입장을 취소했다. 스위스 은행도 금리 인하라는 깜짝 결정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.

S&P 500 Heads Toward 20th Record This Year



Bloomberg 기사

[개인 금융]

WSJ: The Era of No-Brainer 5% Returns on Cash Is Ending '현금 5% 수익률' 시대는 지났다

- 현금 소지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이다. 연준이 2년 전 금리를 올린 이후에 정기예금, 머니 마켓 펀드, 다른 현금성 투자가 많은 경우 연 5%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.
- 그러나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일부 현금성 투자는 수익률이 줄고 있다.
- CD의 경우 12개월 이상 짜리에 연 5% 금리를 정하는 것이 쉬웠다. 그러나 2년 만기 CD는 작년 말에 약 5.5%에서 5% 미만으로 줄었다.
-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금리를 먼저 중요하시고 기간을 두번째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,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.
- 이와 관련 지난 2월에 개설된 고금리 CD의 약 70%가 1년 미만이라는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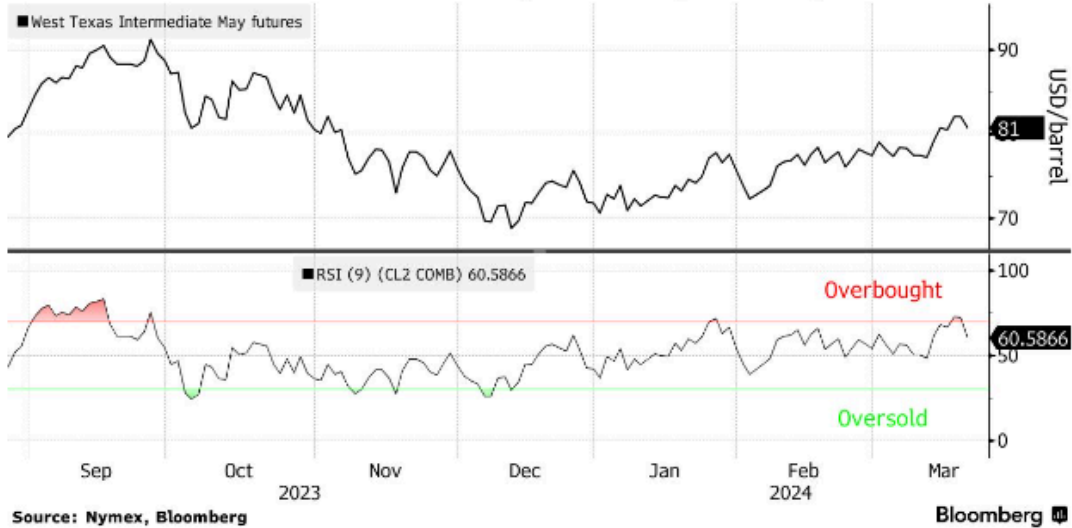
WSJ 기사

[에너지]

Bloomberg: Oil Holds Near \$86 as Dollar Vies With Fed's Rate Trajectory 유가 86달러 근접 ... 달러 강세 영향

-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거의 81달러 가까이에서 안정적이다.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는 입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.
-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. 글로벌 벤치마크는 수요일 최근 랠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기술적 지표가 발표된 이후, 약 한 달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.
- 수요일 하락세이던 달러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로 안정세를 보였다. 강한 달러는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 원자재에 영향을 준다.

Oil Steadies Near \$81 Amidst Dollar Strength
WTI fell the most in a month after trading in overbought territory



Bloomberg 기사

WSJ: U.S. Crude Oil Inventories Fall by 2 Million Barrels in Week Ended March 15

지난주에 미 원유 재고 2백만 배럴 감소

- 수요일 미 에너지 정보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, 지난주 미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. 정유사들이 계속해서 원유 수용량을 늘렸기 때문.
- 전략비축유를 제외한 상업용 원유 재고는 2백만 배럴 감소하여 4억4천5백만 배럴을 기록했다. 이는 동일 기간 5년 평균보다 약 3% 낮은 양이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N Business: 10% of US workers are in jobs most exposed to artificial intelligence, White House says

백악관, 미 근로자의 10%가 AI에 취약하다고 밝혀

- 백악관 분석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약 10%가 빠른 AI 발전으로 혼란을 겪을 위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- 해당 보고서는 AI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백악관의 심층적 분석으로, 교육 수준 및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취약함을 지적했다. 즉, AI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.
- CNN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Jared Bernstein은 “SNS와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정부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. AI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.”이라고 말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CNN Business: Meta, Microsoft, X and Match Group challenge Apple over app store terms**MS 등 기업들, Apple에 앱스토어 규정 관련 이의제기**

- 메타, Microsoft, X 및 Match Group이 앱 스토어 약관에 대해 Apple에 이의를 제기했다.
-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X 및 데이팅 앱 기업 매치 그룹 등의 경쟁 기술 대기업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 앱스토어 재편을 위한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.
- 경쟁 활성화를 위해 어플 제조사와 고객 간에 거래 및 프로모션과 관련된 소통을 애플이 허락하도록 강제한, 기존의 법원 명령을 애플이 의도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것.
- 수요일 원고 측 관계자는 “애플의 앱 결제 방식 개편 계획에는 법원이 반경쟁적이라고 명시했던 규칙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어플 개발자에게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여 법원의 명령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.”고 말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CNBC: EV charging for the U.S. freight trucking market is starting to scale**미 화물 트럭 시장 위한 전기차 충전 확대한다**

- 전기 트럭 운송 기업 아인라이드(Einride)가 전기차 인프라 개발사인 볼테라(Voltera)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충전소를 개장한다.
- 두 기업이 건설한 710번 주간 고속도로의 린우드 스마트충전소에는 65개의 충전기가 있으며 하루 200대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다. 처음에는 글로벌 해운 대기업 A.P. Moller-Maersk가 운영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운영됐다.
- 항만 트럭이 화물 시장에 대규모 전기차 기술 도입의 주요 열쇠로 간주되는 상황이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**미국 씨티은행·JP모건, 친환경에너지 투자비율 공개키로****유럽 은행들의 그린택소노미 추세 모방**

미국 대형은행 씨티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 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. 지난해의 JP모건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.

20일(이하 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뉴욕시 감사관실의 제안을 수용해 녹색금융 비율을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. 녹색금융 비율이란 화석연료 기업 투자금 대비 재생에너지 기업 투자금 비율을 말한다.

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은행이 화석 연료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